

(주) 세원

리그린 환경에 적합, 가공성 용이

을 1월부터 본격 시판

전분과 전분당 전문 제조업체인 (주)세원은 플라스틱에 분해성능을 부여, 토양에 매립하였을 때 자연생태계의 미생물에 의해 짧은 기간내에 분해될 수 있는 포장완충재인 리그린을 지난 95년말 개발하고, 그간 테스트를 해오다 을 1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세원 자체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포장용 완충재인 리그린은 물리화학적으로 개질화시킨 전분을 팽윤시켜 제조한 제품이다.

즉 특수 변성처리된 전분을 주원료로 여기에 소량의 첨가제를 혼입하여 압출가공을 통해 제품화한 것으로 자연생태계의 미생물에 의해 완전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게되며 물에 완전 용해되면서 발포스티렌과 외

관 및 기계적 성질(압축성, 발탄성, 낮은 밀도)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발포스티렌과 달리 화학발포제(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발포시키기 때문에 제조시 환경에 무해하며 가공성이 용이하고 정전기 또한 발생하지 않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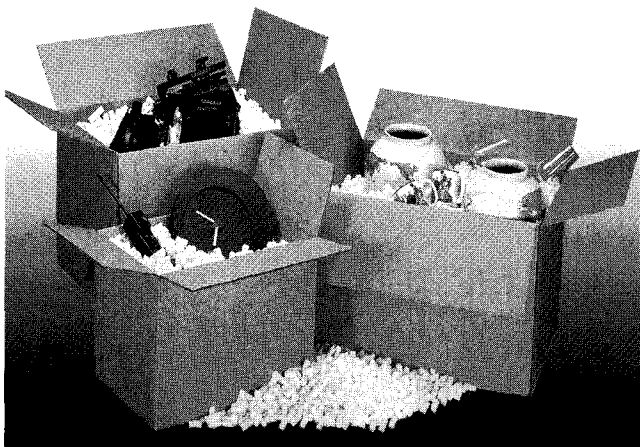
특히 제조비용도 기존 스티렌제품에 비해 저렴하므로 기존제품에 대한 대체효과는 클 것으로 세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제품의 종류는 4가지가 있으며 폴리스티렌 포장용 완충재의 완전 대체품, 전자부속품,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제품이나 정전기에 민감한 제품의 포장, 항공우편, 소포·이삿짐포장, 각종 위험물의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세원은 자체 내에 압출설비를 설치하고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마스터배치형태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판매해 왔다.

세원측은 국내 폐기물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광분해성 제품보다는 미생물에 분해되는 생분괴성 제품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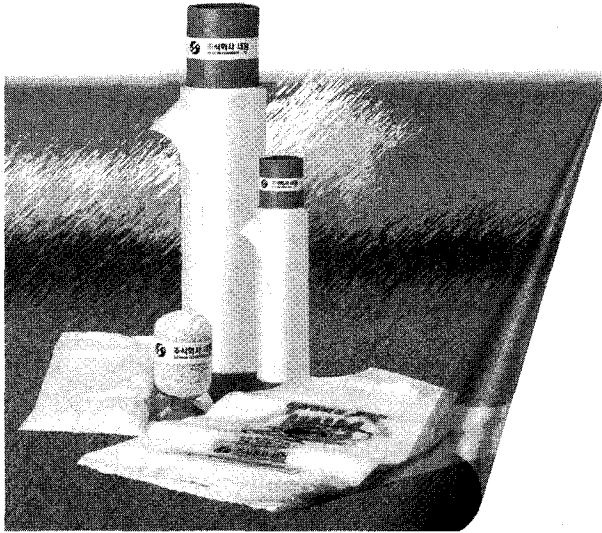
세원은 이외에도 전분 충전형 생분



▲ 세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포장완충재인 리그린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집 3



▲ 세원의 생봉괴성 마스타베치 바이오닐과 필름제품들.

괴성 수지인 바이오닐을 개발해 동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분코팅, 전분 함유 억제, 전분의 수산기에 소수성 작용기를 도입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전분에 분자량이 1만2천 이상의 고분자 물질을 결합시킨 화합물과 베이스수지를 블렌딩하여 마스타베치로 제품화시킨 것이다.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기존 플라스틱 가공수지와 사용성이 우수하며 각종 플라스틱 강도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 세원은 포장완충재인 리그린과 함께 이 제품에 기대를 걸고 있다. [K]

매년 2월 25일은 「포장인의 날」

(사)한국포장협회는 매년 2월 25일을 「포장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날은 포장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한용교 포장인상」을 시상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포장인들의 결속의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포장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포장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포장협회가 제정한 「포장인의 날」은 포장인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매년 2월 25일 「포장인의 날」이 포장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한국포장협회